



경제지표 호조에도 하락하는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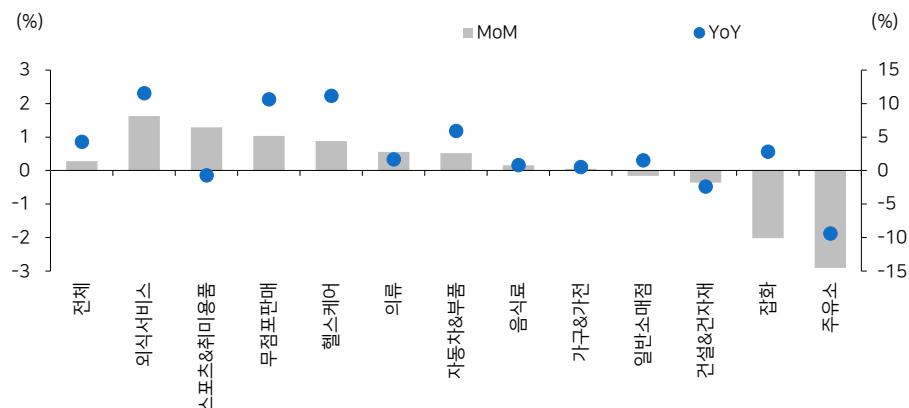
연준 피봇 기대감에 미국채 10년 금리는 이를 연속 큰 폭으로 하락, 전일대비 10bp 하락한 3.92%. 그 와중에 경제지표는 호조. 어제 발표된 주간 신규/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모두 전주대비 감소, 11월 소매판매도 시장기대를 상회

미국 11월 소매판매 및 외식서비스 매출 금액은 전월대비 0.3% 증가, 전월 부진 (-0.2%) 이후 반등, 컨센서스(-0.1%) 상회. 11월 이전 분위기였다면 어제와 같은 실물지표 발표에 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했을 것. 그런데 금리 하락, 주가 상승한 이유는 '2, 3분기에 월평균 전월대비 0.6% 증가하던 모멘텀에 비하면 경기/인플레가 둔화되고 있으나 침체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된 듯. 양호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었음에도 유독 빠른 금리 하락 속도

금리와 다르게 주가는 bad is good에서 good is good으로 반영하는 모습.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연고점 경신, 업종별로는 여전히 섹터 로테이션 지속.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는 조정, S&P500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전일대비 각각 -0.3%, 약보합 마감. 금리에 대한 반응 중에는 그동안 위축되어있던 부동산(+2.6%)만 강하게 반등

반면 에너지(+2.9%) 소재(+1.7%), 산업재(+1.2%), 경기소비재(+1.1%), 금융(+0.8%)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지수 상승 견인, 반면 헬스케어(-0.6%), 유틸리티(-1.3%), 필수소비재(-1.5%) 등 경기 방어 업종은 부진. RUSSELL2000 지수는 전일대비 2.7% 상승, 이를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7월말 고점 돌파 직전. 11월 주도주(빅테크) 반등 → 12월 소외주(그 외) 키맞추기 흐름

그림1 미국 11월 소매판매 업태별 매출 증감율



자료: US Census Bureau,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주체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